

조선시대 남자 포(袍)에 나타난 선(線)의 미(美)

도주연* · 권영숙

성심외국어대학 한국의상디자인 전공*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의류학과

본 연구는 다양했던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선의미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한국복식 디자인에 응용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첫째,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종류별 외부구조선의 흐름과 선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남자 포의 내부구조선의 구조미를 살펴보고자 하며 셋째, 외부구조선과 내부구조선에 나타난 선미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사대부를 중심으로 착용되었던 편복 포로 철릭, 답호, 직령, 도포, 두루마기, 창의, 심의를 들 수 있으며, 문헌고찰과 회화를 중심으로 남자 포의 외부구조선과 내부구조선에 나타난 선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포의 외부구조선의 선미는 포의 윤곽선 또는 실루엣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체로 조선전기는 발목까지 오는 유연한 주름에 폭이 좁은 H형 실루엣으로 고려말 복식의 연장으로 보여지며, 조선 중기인 17세기에는 소매와 옆무의 폭이 넓은 풍성한 주름의 H형으로 보여지고, 18세기 초에는 볼륨감있는 A형의 윤곽선에서 조선후기인 18세기 중, 후기를 거쳐 19세기로 갈수록 풍성한 A형에서 폭이 좁아지는 H의 실용화를 추구한 단소화된 실루엣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철릭은 목을 감싸는 것에서 흐르는 직선적이면서도 곡선적인 선미와 소매와 囊의 풍성한 주름미가 돋보이는 곡선적인 실루엣의 포이다. 직령교임형의 답호는 풍성한 외형을 받쳐주는 반소매형태의 받침옷으로 착장시 옆무의 주름이 보이게 하여 걸음의 우아하면서도 단아한 실루엣선을 연출한다. 직령은 직선적이면서도 곡선적인 것, 직선과 사선의 쉼, 직선적인 드레이프의 옆무와 긴 소매 주름으로 위엄과 격식을 갖춘 실루엣선을 가진다. 도포는 뒤에 달린 직선적인 뒷자락과 사선의 옆무 형태로 유연하면서도 날렵한 직선미가 돋보인다. 창의는 넓은 두리 소매에 의한 풍성함을 가지면서 옆트임에 의한 활동적인 실루엣 선을 가지며, 두루마기는 단아하면서도 단소한 실루엣 선을 가진다. 심의는 각 부위에 사용된 치수와 구성방식이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구조선을 가지며 학자적 위엄을 갖춘 복식이다.

남자 포의 내부구조선의 선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깃의 형태는 조선전기에는 목을 감싸는 굵고 긴 직선의 이중 칼깃에서 목판깃→칼깃→등근깃으로 후기로 갈수록 포의 단소화로 인해 깃의 형태가 작아지고 곡선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여자의 깃에 비해 크고 굵은, 위엄을 가진 직선과 곡선의 선미를 가진다. 조선전기의 넓은 직선과 사선에서 후기로 갈수록 사선의 쉼 형태로 작아진다. 옆무의 형태는 넓은 직사각이나 직삼각형으로 쉼의 사선과 조화되면서 포의 실루엣에 영향을 주며 囊부분에 여유를 주어 안

정감있는 선의미를 나타낸다. 소매형태는 전기는 긴 사선형의 통수에서 중기는 점차 둥근 배래로 변하면서 후기에는 소매통이 넓은 두리소매 형태로 된다. 도련은 전기는 직선적인 선미를 보이거나 중, 후기를 거치면서 곡선적인 선미의 도련을 보이고 있다. 옷고름은 전기는 짧은 옷고름으로 단순히 여밈의 실용적인 목적이었으나 중, 후기를 거치면서 길고 넓은 장식적인 옷고름의 선미를 보이며, 깃과 등장의 연장된 선상에서 직선적인 사선, 유동적인 곡선미를 가진다. 조선전기의 대(帶)는 허리부분에서 여며지다가 18세기에 이르러 가슴부위로 점차 올라가면서, 대(帶)의 형태도 길어져 장식적인 선의 역할을 한다.

조선시대 남자 포에 나타난 전체적인 선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포의 외부구조선은 남성의 직선적인 인체선과 조화된 선미를 가지며, 조선전기의 직선적인 깃은 직선적인 배래와 도련선, 후기의 곡선적인 깃은 곡선적인 배래와 도련선으로 조화되는 조화미를 보여 준다. 남자 포제는 쉼선을 중심으로 좌우균형을 이루며, 소매는 수직선, 깃과 쉼은 사선과 직선, 배래와 도련은 곡선의 대칭균형을 이루는 균형미를 가지고 있다. 평면재단으로 제작된 직령, 철릭, 답호의 옆무, 고름, 도련, 소매의 주름은 유동미를 표현하고 있다. 포의 깃을 중심으로 한 쉼과 무의 사선에 의한 방향성으로 깃이 강조되는 강조미를 가진다. 평면재단에 의한 포의 깃과 쉼, 실루엣, 착장에 의한 드레이프 등, 포의 구조선에 의한 착시미로 인해 착장시, 키가 커 보이면서 동시에 성숙한 남성미를 표현하고 있다.